

2021년은 광주비엔날레와 광주디자인비엔날레가 동시에 열리는 특별한 해다. 지난 2018년 열린 광주비엔날레 전시 모습.



김대중 정신 계승

광주전남추모사업회, 탄신 97주년 음악회  
8일 화순 김대중기념공간...유튜브 생중계

김대중 대통령 탄신 97주년을 기념하는 음악회가 8일 오후 2시 김대중기념공간(화순군 도곡면 운천2길 44) 2층 특별무대에서 열린다. 김대중대통령광주전남추모사업회가 주최하는 이번 공연은 '거룩한 지도자 김대중, 당신은 우리입니다'를 주제로 열리며, '노래로 세상을 보고 살핀다'는 김대중 정신을 계승하고 김대중 대통령 헌정곡 '달라스행 비행기 1973' 발표를 기념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중화

공연은 황정숙 아나운서의 사회로 진행되며, 박중화의 '달라스행 비행기 1973'으로 막을 올린다. '달라스행 비행기 1973'은 김 대통령의 미국 망명 시절, 미국 달라스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그가 직접 쓴 시 '세월이 오며나'를 박중화가 각색해 만든 곡이다. 박중화는 시에 담긴 희망과 평화의 메시지를 온전히 살리는 방향으로 곡을 각색했다고 밝혔다. 박정희 정권의 유신독재에도 불구하고 희망과 승리를 노래하며, 이국땅에서 느끼는 조국에 대한 그리움과 국민에 대한 사랑이 담겨있다.

이외 소프라노 김선희가 '나를 잊지 마세요', '당신은 우리입니다'를 들려주며, 민중가수 정용주는 '여기가 어디냐', '세월이 갈수록'을 부른다.

최도은은 '술아 술아 푸르른 술아', '광야에서', '진혼곡', '광주 출정가', '임을 위한 행진곡', '불나비', '폭풍속으로' 등을 들려준다. 공연은 광주MBC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된다.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진주검무

‘한 장으로 읽는 무형문화재’

문화재청, 디지털 안내서 발간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은 국가무형문화재 디지털 안내서인 '한 장으로 읽는 무형문화재-신명나는 무형문화재' (이하 '한 장으로 읽는 무형문화재')를 발간했다.

이번 전자책에는 국가무형문화재 종목별 개요와 소개, 내용과 특징, 역할과 가치 등이 한 장으로 정리돼 있다. 또한 '신명나는 무형문화재'라는 부제로 전통 공연·예술 분야인 무용(진주검무 등 7종목), 연희(양주별산대놀이 등 14종목), 음악(종묘제례악 등 27종목) 관련 국가무형문화재 48종목을 수록했다.

지난해에는 전통 공연·예술 분야를 수록했으며, 2021년에는 의례·의식, 전통 지식·생활관습 등 분야 등을 게재했다.

한편 전자책은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디지털 아카이브 누리집에 공개하고 있으며 자유롭게 파일을 내려받을 수 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올해 광주 대형 미술축제 동시에 열린다

올해는 제13회 광주비엔날레와 제9회 광주디자인비엔날레가 동시에 열리는 특별한 해다. 당초 지난해 열릴 예정이었던 광주비엔날레가 코로나 19 영향을 받아 올 2월로 행사가 연기되면서 두 개의 대형 미술축제가 한 해에 치러지게 됐다.

메머드급 행사가 동시에 치러지면서 코로나19 팬데믹 시대에 온·오프라인이 유기적으로 순환하는 새로운 예술 실험을 시도하는 두 축제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에 따라 광주관광재단(대표이사 남성숙)은 올해를 '2021비엔날레 여행의 해'로 지정하고 다양한 홍보마케팅을 진행한다.

2021 비엔날레 여행의 해. 광주비엔날레, 2월 26일~5월 9일. 디자인비엔날레, 9월 2일~10월 31일. 광주관광재단, 여행상품 기획 마케팅 강화.

◇ 두 개의 대형 미술 축제-광주로 쏠리는 눈

광주비엔날레는 오는 2월26일부터 5월9일까지 73일간 광주비엔날레 전시관, 국립광주박물관, 호랑가시나무 아트폴리곤, 광주극장 등에서 열린다. '떠오르는 마음, 맞이하는 영혼(Minds Rising, Spirits Tuning)'을 주제로 열리는 올해 비엔날레는 공동예술감독 테프네 아야스와 나타샤 진발라 감독이 진두지휘한다.

이번 비엔날레에는 49개국, 69명의 작가가 참여하며 주제를 구현한 본 전시 이외에도 퍼블릭 프로그램 '라이브 오르간', 온라인 저널, 출판물 등을 통해 다양한 작품을 선보이게 된다.

포스트 코로나시대, 4차 산업혁명시대 등 변화의 물결 속에 미래 디자인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찾는 광주디자인비엔날레는 9월 2일부터 10월 31일까지 60일간 광주비엔날레전시관, 아시아 문화전당 등에서 열린다.

'Design(디자인)'과 'Revolution(혁명)'의 합성어로 변화하는 새로운 시대를 맞아 변화하는 디자인의 미래를 탐구하는 의미를 담은 'D' Revolution(다-레볼루션: 디자인 혁명)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디자인 비엔날레는 주제전, 국제전, AI전시관, 특별전, 지역산업관, 디자인 체험프로그램, 학술행사 등으로 꾸며진다. 김현선 홍익대 교수가 총감독을 맡아 행사를 준비하고 있으며 노태우대통령의 딸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국제전 큐레이터를 맡아 눈길을 끈다.

◇ '2021 비엔날레 여행의 해' 지정, 홍보 강화

올해를 '2021비엔날레 여행의 해'로 정한 광주관광재단은 비엔날레와 연계한 광주여행상품을 기획하고 다양한 이벤트를



2019광주디자인비엔날레

준비하는 등 비엔날레를 관람하기 위해 광주를 찾는 관광객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다. 패션의 도시 밀라노, 정원의 도시 도 교처럼 광주를 '예술'하면 떠오르는 도시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담은 기획이다.

재단은 이를 위해 '2021비엔날레 여행의 해'를 위해 광주비엔날레재단, 광주디자인진흥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예술여행상품 개발 및 전시회 성공 개최를 위한 협력을 논의하며 '예술여행의 도시, 광주'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재단은 먼저 '2021 비엔날레 여행의 해' 홍보를 위해 재단 공식 SNS 채널(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블로그)을 비롯해 한국관광공사 '대한민국 구석구석', 네이버 및 다음 포털사이트 등을 활용해 '비엔날레 여행'을 독려하고 있다.

아울러 광주시 대표 캐릭터인 '오매나'를 활용, '오매나가 소개

하는 비엔날레, '실시간 관람객 인터뷰' 등을 통해 관광객들이 좀 더 쉽게 비엔날레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전일빌딩 245에 위치한 남도관광센터에 비엔날레 특별 홍보 코너를 마련해 광주비엔날레와 광주디자인비엔날레 기간동안 광주를 방문한 모든 이들이 전시를 관람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다양한 이벤트도 열린다. 전시 작품과 연계한 K-POP 공연, 플래시몹 등을 선보일 예정이며 미식의 도시 광주를 대표하는 간식인 주먹밥, 상추튀김 등을 맛볼 수 있는 시간도 마련한다. 이와함께 비엔날레 시티투어버스를 운영, 전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또 반대로 전시관람을 끝낸 관광객들이 광주 곳곳을 여행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준비중이다. 특히 시티투어버스에는 전문해설사를 배치해 비엔날레와 광주관광에 대해 자세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전시에 대한 이해도와 만족도를 높일 생각이다.

비엔날레와 관련한 여행상품을 개발하고, 비엔날레 여행의 날을 운영하는 등 관광객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데도 초점을 뒀다. 재단은 지역 기업과 손잡고 '디자인비엔날레'와 '여행'을 콜라보한 '디자인 여행'을 주제로 팝업스토어를 운영하며, 1월 중 협력 여행사를 공모한다.

또 전시 기간 중 월 2회 '비엔날레 여행의 날'을 지정, 전시회 관람과 더불어 광주 주요 관광지를 둘러볼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해 체류형 관광을 유도할 예정이다. 그밖에 지속가능한 '여행의 도시 광주' 브랜드화를 위해 전시회 기간 문화·예술 전문가가 모이는 국제학술행사를 포함한 다양한 MICE 행사를 광주로 유치해 축제를 넘어서 학문적 교류가 함께 이뤄지는 광주비엔날레, 디자인비엔날레를 만들어갈 계획이다.

/김미은 기자 mekim@·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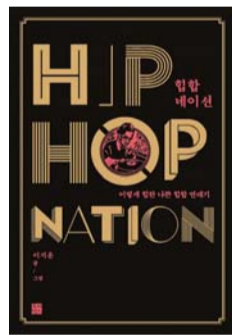
힙합의 변천사 한눈에 이지윤 '힙합 네이션' 출간

힙합(Hip Hop)은 1980년대 미국에서부터 유행하기 시작한 춤과 음악을 총칭하는 말이다. 엉덩이를 흔들다'는 말에서 유래한 힙합은 대중 음악의 한 장르를 일컫는 말인 동시에, 문화 전반에 걸친 흐름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하다.

최근 힙합의 탄생부터 힙합에 대한 편견과 논란, 스킨들, 그리고 황금기까지 수많은 변천사를 담은 '힙합 네이션'이 출간됐다.

저자 이지윤은 힙합의 전성기였던 1980년대 말부터 1990년대 중반, 미국에서 힙합을 처음 접했을 때를 떠올리

며 이 책을 썼다고 밝혔다. 책은 '올드 스타일, 힙합의 길을 열다', '나쁜힙합', '어글리 힙합', '그럼에도 불구하고 힙합' 등 총 4장으로 구성되었으며, 책의 말미에는 '힙합 영어 속어 모음'도 담겼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코로나 19의 확산으로 힙합 콘서트들은 자취를 감추었지만 저자는 이 책을 통해 우리가 힙합에 열광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다시한번 일깨워준다. 또, 미국 동부와 서부로 양분된 힙합 트렌드의 '디스 diss' 전쟁과 이에 얽힌 무용담을 비롯해 갱스터 랩의 탄생과 몰락까지 힙합계의



크고 작은 사건들을 이야기한다. 저자는 "내가 사춘기 시절 힙합을 들으며 세상과의 소통을 갈망했던 것처럼 어느 때보다 답답한 나날을 보내고 있는 많은 이들에게 힙합 시간여행의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한다.

한편, 이 씨는 연세대 신문방송학과와 보스톤대학교 대학원에서 커뮤니케이션을 공부했다. 아리랑국제방송 보도팀장, 주한 미국 대사관 선임전문위원을 역임한 뒤 현재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미디어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다.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모던 슬라브옥상 칼라강판 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아파트, 빌라, 원룸, 주택, 상가건물, 대형빌딩 등(슬라브 옥상) 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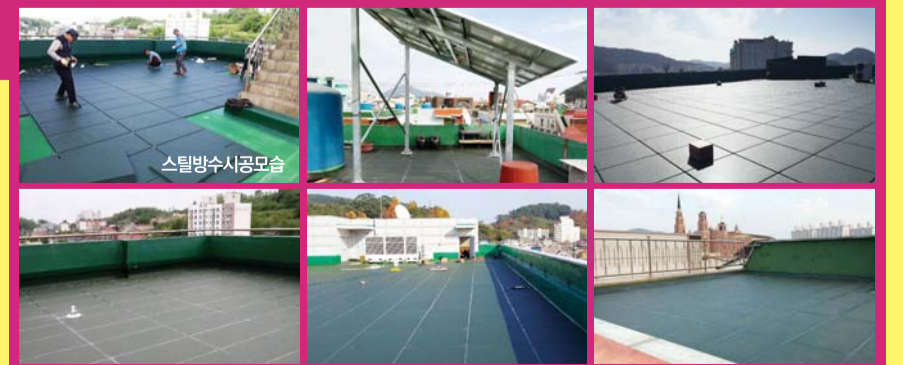
옥상지붕공사

슬라브 주택, 데스리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옥상스틸방수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모던건설 (트윈스틸) 시공 문의 062)531-3530, H.010-9229-3530

옥상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무료견적

광주·전남 같이 하실 분 모십니다.

디자인 등록 제30-0934833호 제30-0949873호 특허청